

장흥 장동면 울리마을,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추진

장흥군-다솜복지재단-장흥군새마을회, 참여
14가구 지붕교체·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추진

장흥군 장동면 울리마을에서는 (사)장흥군새마을회 회원 20명이 지붕누수와 외부 재래식 화장실 이용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붕교체와 실내화장실 설치 등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다솜복지재단의 공모사업비와 장흥군새마을회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14가구에 지붕교체, 실내화장실 설치,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생활속 어려

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와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오늘 장동을 마지막으로 10개 읍면 14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사)장흥군새마을회는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 봉사, 김장김치 나눔 등 복지사업과 환경보존, 자원재활용 사업 등 지역내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운

영하고 있다.

장흥군은 2013년부터 다솜복지재단의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공모에 참여해 8년째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은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생봉사단과 (사)장흥군새마을회 봉사단의 참여로 21가구의 열악한 주택을 개보수 하였다.

김일진 장흥군새마을회 회장은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14가구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택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고쳐드릴 수 있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함께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보람되고 기쁘다. 장흥군새마을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장흥군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바쁜 농사철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해주신 장흥군 새마을회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흥군새마을회는 올해 처음 다

솜복지재단의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장흥군민의 주거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보건소, ‘장애인 재활보건의사업’호평

1:1 맞춤형 재활운동·방문서비스·웃음 원에 치료 프로그램 등



이 중 1:1 맞춤형 재활운동은 참여자의 운동능력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의지를 높여 줘 대상자의 96%가 꾸준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조 모임과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통해 원예치료, 웃음치료, 수공예품 만들기, 근력강화운동 등을 운영하며 참여자간 교류를 촉진하고 활기증진과 삶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국립재활원 강사를 초빙, 자신이 겪은 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5계명 등을 교육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보건소가 연중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 맞춤형 재활운동,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찜질막 재활교실 등 6개 프로그램 운영 결과 2,126여 명이 참여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재활 보건의사업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프로그램과 외출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담양 월산면 지사협, 빨래봉사로 소외가구에 포근한 가을 선물



20여 가구 직접 수거·배달

담양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이웃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을맞이 찾아가는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커진 시기에 세탁시설이 열악해

부피가 큰 침구류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마을이장이 직접 대상자 20여 가구에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깨끗이 세탁 후 직접 배달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석곡면, ‘석곡에서 온 도시락’ 훈훈

식료품 선물 꾸러미 전달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에 홀로 사시는 성○○(86) 할머니는 최근 생각지도 못한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

꾸러미 속에는 석곡에서 생산된 곡성군의 대표 쌀 백세미와 식료품을 비롯해 생필품 등이 가득했다.

같은 날 석곡면 방주마천목길 조○○(90) 할머니에게도 같은 선물 꾸러미가 전해졌다. 홀로 살면서 거동까지 불편해 장을 보기가 어려운 할머니들은 가을 햇살과도 같은 따뜻한 선물에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다.

12일과 13일 이틀 간 석곡면에서 선물 꾸러미를 받은 사람은 모두 15명이었다.



곡성군 석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이 담긴 식료품 선물 꾸러미를 전달한 것이다. 곡성=양혜영기자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수시모집 (경력인 우대)

신세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교육지원청 앞)